

제 39 호

발행일 2022. 9.

Gwangju Welfare
Research Institute
News

광주복지 BRiEF

Contents

01_1p
들어가며

02_2p
외국인주민의 개념

03_3p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현황

04_8p
마치며

♣_8p
고려인마을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현황 및 특성

1. 들어가며

- 1990년대부터 시작된 국내 외국인 유입이 2000년대 들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유형도 동포,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외국인 증가로 인한 불안과 우려는 여전하다(정기선 외, 2016).
-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고 다문화사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더불어 사회통합과 다문화 수용을 위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따라서 광주 시민은 광주에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사회통합을 위한 광주시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개방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개념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발행인 김만수
발행처 (재)광주복지연구원
주소 619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2층
TEL 062-603-8399
FAX 062-603-8377
홈페이지 www.gwri.kr

2. 외국인주민의 개념

-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하지만 모든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보지 않는다.
-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일반 체류자격과 영주자격 중 하나를 가져야 한다.

구분	세부내용	
일반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단기체류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장기체류	유학, 연수, 투자,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위에 해당하는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 외국인주민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귀화자) 및 그 자녀를 말한다(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르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로 가진 자로 외국인도 등록지(체류지)를 주소로 볼 수 있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간주하며 지역사회의 지원과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주민은 법률상 용어가 아닌 행정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용어다.
- 외국인주민을 크게 한국국적 미취득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로 분류한다. 한국국적 미취득자는 국내에 90일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이 있다. 한국국적 취득자는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고 외국인주민 자녀는 한국국적 취득자의 미성년 자녀와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 미취득자의 미성년 자녀를 의미한다.
- 행정안전부는 그간 거주외국인, 외국인주민, 이주민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왔으며 2008년부터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외국인의 한국사회에서 적응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단일화를 시도하였으나 각 부처별 정책 대상 및 목표가 다르고 대상별 근거법이 상이하여 통일된 용어로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하여 현재는 각 부처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세부내용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초과 체류자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이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결혼이민자	체류자격이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자
유학생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자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거소신고자
기타 외국인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초과 불법체류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 자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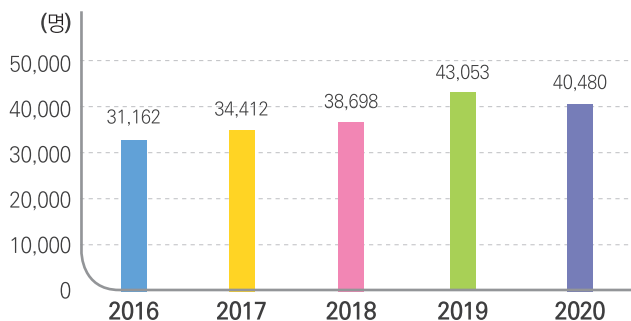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2021).

3.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현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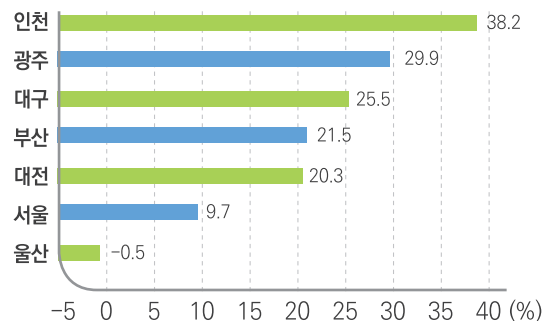
1)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현황

- 광주 외국인주민 수는 4만 480명이다. 외국인주민 수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0년 외국인주민의 수는 2016년 대비 2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외국인 유입이 감소한 것은 COVID 19 확산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 7대 특별·광역시 외국인주민 증감률은 인천의 외국인주민 증가율이 38.2%로 가장 높고 울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인천 다음 두 번째로 외국인주민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연도별 외국인주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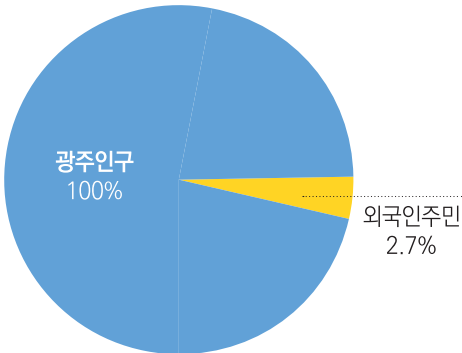
7대 특별·광역시 외국인주민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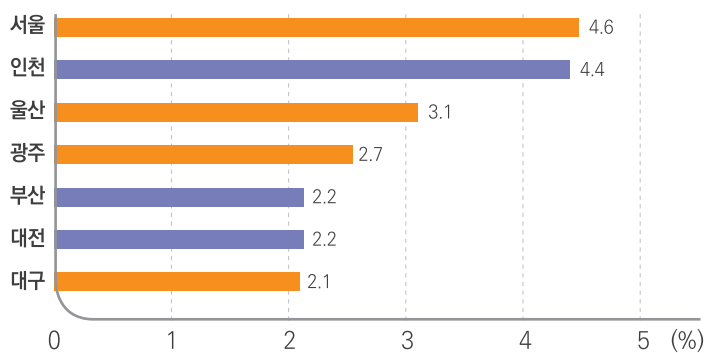
1) 행정안전부(202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0.11.1. 기준) 주1. 증감률 = (2020년 주민 수 - 2016년 주민 수 / 2016년 주민 수) * 100

- 광주 인구 147만 7천 573명 중에서 외국인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2.7%다. 7대 특별·광역시와 비교하면 서울이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4.6%로 타 시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이 4.4%로 두 번째로 높았다. 대구가 2.1%로 가장 낮았고, 광주는 울산(3.1%) 다음으로 네 번째다.

광주광역시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수



7대 특별·광역시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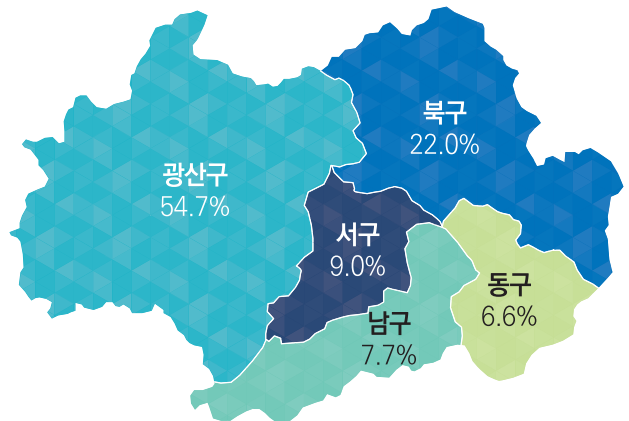


주1. 비율 = (특별·광역시별 총 인구수 / 외국인주민 수) * 100

2)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자치구별 현황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100%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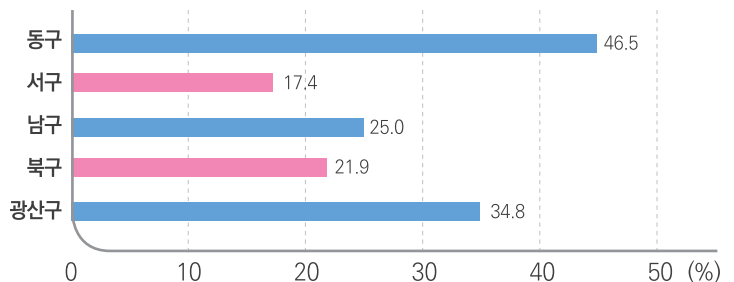
- 광산구의 외국인주민 수는 2만 2천 132명 이고 이는 광주광역시 전체 외국인주민의 54.7%에 해당한다. 북구 외국인주민 수가 8천 911명으로 22.0%를 차지하여 광산구와 북구에 약 76%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서구가 9.0%, 남구가 7.7%이고 동구가 6.6%로 가장 적다.



주1. 비율 = (자치구 외국인주민 수 /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수) * 100

- 광주광역시 동구의 외국인주민 증감률이 46.5%로 가장 높고 광산구가 34.8%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증가율이 17.42%로 가장 낮다.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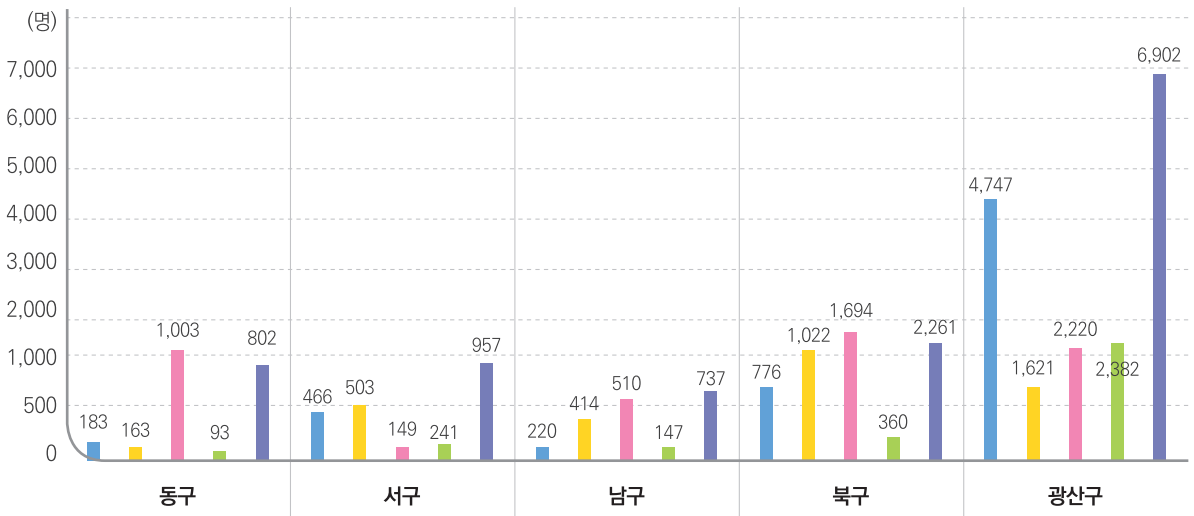


주1. 증감률 = ((2020년 주민 수 - 2016년 주민 수) / 2016년 주민 수) * 100

- 광주 외국인주민의 50% 이상이 광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외국인근로자는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평동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국적동포는 광산구 고려인마을 중심으로, 유학생은 호남대학교와 광주여자대학교 근처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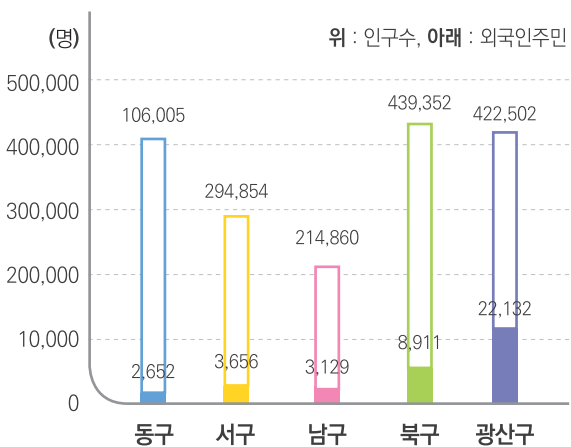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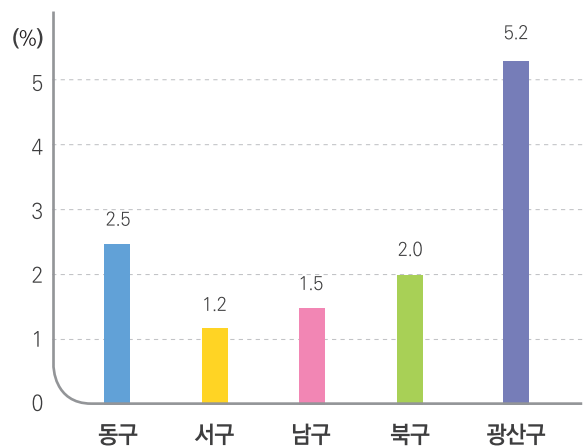


- 광산구가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2%로 가장 높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총 88개 시·군·구를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에서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동구가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2.5%로 두 번째이며 북구가 2.0%, 남구와 서구가 각각 1.5%, 1.2%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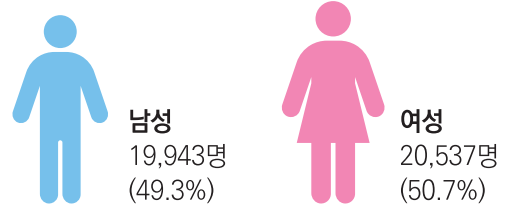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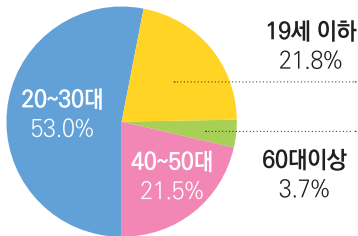
3)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특성별 현황

- **성별** :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중에서 여성이 2만 537명(50.7%)으로 남성 1만 9천 943명(49.3%) 보다 많다.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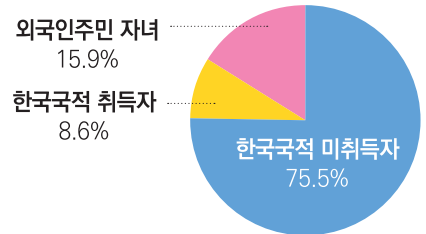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연령별 현황



- **연령** :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30대가 53.0%로 가장 많고, 19세 미만이 21.8%, 40~50대 21.5%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다. 60대 이상은 3.7%로 가장 적은 비율에 해당한다.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가 20~3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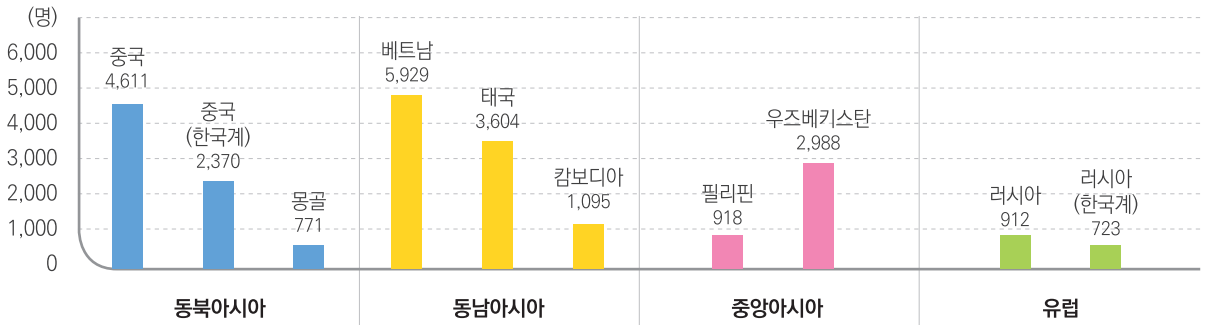
- **국적** :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중에서 한국국적 미취득자가 3만 573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75.5%에 해당한다. 한국국적 취득자는 3천 483명으로 8.6%, 외국인주민 자녀는 6천 424명으로 15.9%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국적취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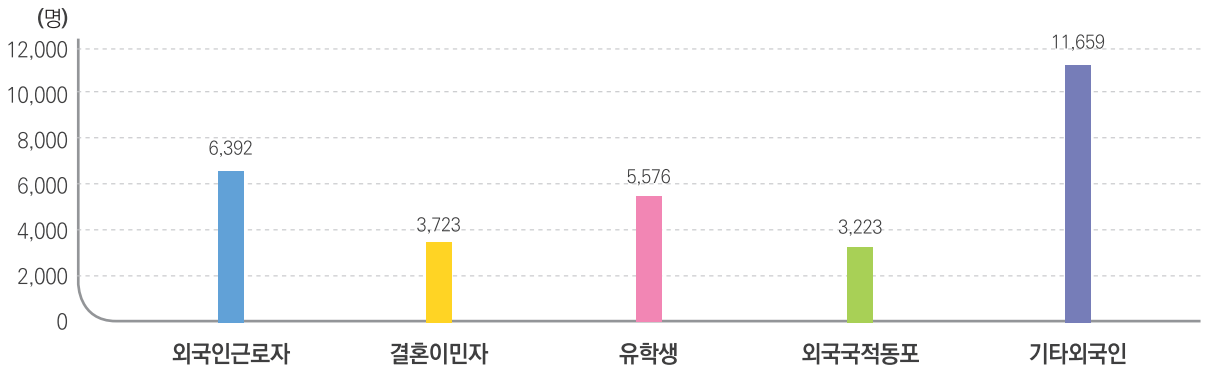
한국국적 미취득자의 상위 10개 국적이다. 대부분 아시아 중심으로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다. 베트남에서 유입된 외국인주민이 5천 929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4천 611명으로 두 번째다. 다음으로 태국, 우즈베키스탄, 한국계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한국국적 미취득자 상위 10개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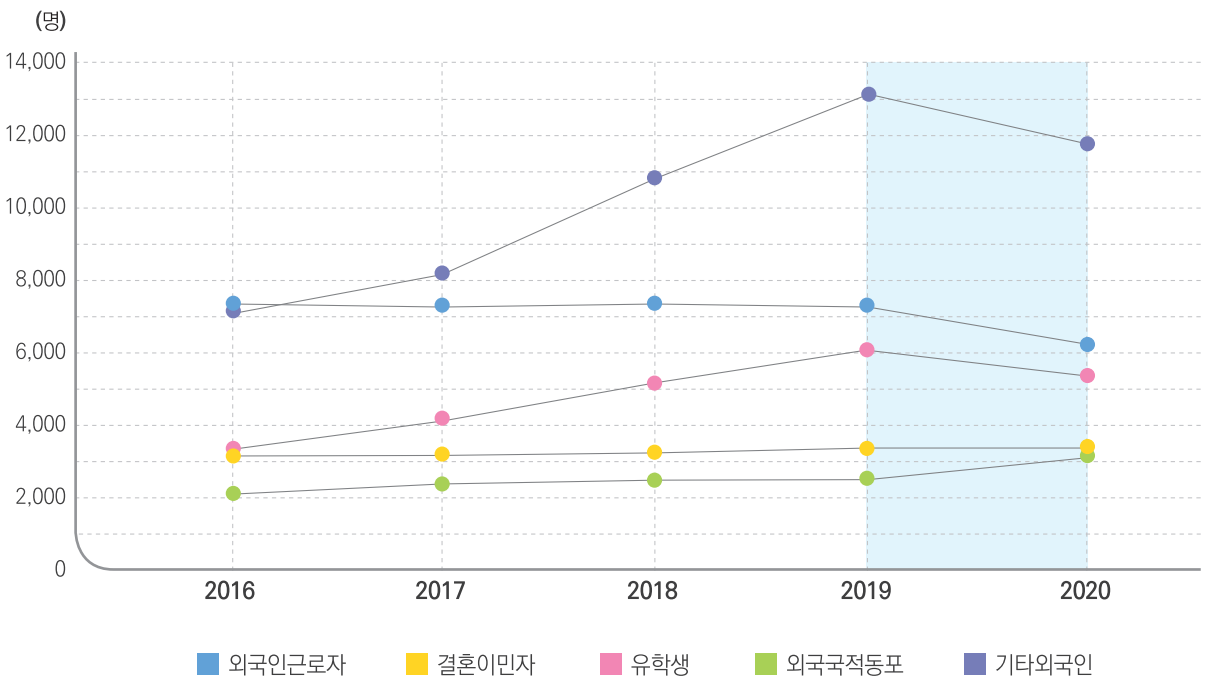


- **세부유형** : 한국국적 미취득자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기타 외국인이 3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외국인은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초과 불법체류자를 의미한다. 외국인근로자 20.9%, 유학생 18.2%, 결혼이민자 12.2%, 외국국적동포가 10.5%순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한국국적 미취득자 현황



세부유형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와 외국국적동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 기타 외국인은 2016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9년 COVID 19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마치며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COVID 19만 아니었다면 광주에는 현재 더 많은 외국인주민과 함께 살고 있었을 것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고려인동포 약 1,000여명이 광주로 유입되었고 대학교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 전략을 계획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고학력화 등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계속 될 것이다.

외국인주민의 증가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일 수 없다. 내국인과의 갈등 문제, 범죄 발생 가능성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며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써 인정하는 다문화 수용성과 시민의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고려인마을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의미하며(재외동포법 제2조), 외국국적동포에 고려인이 포함되어 있다.

고려인은 1890년 이후 일제의 압력으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독립운동가와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받아 조상의 땅 광주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고 고려인 이외의 다양한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고려인마을에는 고려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고려인 카페 및 식당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관심이 늘어나 탐방객들이 늘어나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고려인 마을에는 주민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진료소, 교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려인종합지원센터



고려인 문화관



고려인 진료소

출처 : 순오기님 블로그(<https://blog.naver.com/soonok0517/221737972387>)

고려인마을 홈페이지(www.koreancoop.com)